

정월대보름 맞아 토성면민들 화합 다져

토성면민 노래자랑 대회 열려 ... 최우수상 김준성씨



지난 5일 열린 토성면민 노래자랑 대회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주민자치 위원장 김일관씨와 주민자치 위원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60~70년대에 명절 때마다 각 면 단위 또는 군 단위로 실시하던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 군민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 그때 그 시절을 재현하고 메말라가는 현실을 탈피해 보려는 목적으로 토성 면민이라도 단합과 화합하자는 취지로 천진초등학교강당에서 열렸다.

많은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토성 소울림 사물놀이 원암리 주민 등이 민요공연으로 흥을 돋워 토성면민노래자랑 대회가 더욱 흥겨웠다.

또한 가수초청공연과 토성면번영회 등 개인 및 기업 단체에서 기증한 57개의 상품을 노래자랑 중간마다 추첨하는 형식으로 흥미롭고 즐거운 노래자랑 축제가 되었다. 최우수상은 김준성씨가 차지했다.

백옥식 시민기자

죽왕면번영회(회장 어명선)는 지난 9일 죽왕면 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도 결산보고에 이어 2012년 사업별 예산안 승인이 이뤄졌다.

특히 경로잔치 지원, 군부대 위문, 불우 이웃돕기, 신생아출생 장려 등의 사회복지 부분을 비롯한 5개 분야 18개 항목의 사업예산을 심의 후 통과시켰다.

어명선 회장은 "올해에도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며 "죽왕면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원광연 기자

죽왕면번영회 정기총회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48호(2월 6일자) 7면에 보도된 '거진종교 사격부 창단' 기사에서 창단 멤버 중 '이태호'를 '이태우'로 바로 잡습니다. 이점 당사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월부터 구독자 정리작업을 실시합니다

1년간 월 구독료 4천원 1회도 납부하지 않은 구독자 정리

1인당 1년간 우편요금만 5,760원 ... 경로당·다문화 가정 등 무료배송은 그대로

고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월 31일 창간한 고성신문이 어느덧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본지를 아껴주신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간 2년차를 맞는 2012년부터는 그동안 일부 무료로 배달해 드린 신문을 모두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 1부가 여러분의 가정에 도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인건비와 편집·인쇄비 등을 제외하고도, 1가정당 우편요금만 연간 5,760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문 1부 가격인 4천원보다도 많은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는 1년간 월 구독료를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으신 독자는 순차적으로 신문발송이 중단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만일 신문이 끊어진 뒤 다시 구독하고 싶은 경우는 별도로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납부 제외 독자님

-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
- ◇1년 선금을 내주신 독자님
- ◇은행 자동이체 중인 독자님
- ◇교환지 형태로 받아보시는 독자님
- ◇독지가 기증 독자님
- ◇고성지역 경로당, 다문화 가정

주식회사 고성신문

신문구독 관련 문의 ☎033-681-1667